근대 이행기 호남 유학의 지형*

- 도학 계열 문인집단의 형성과 전개에 주목하여 -

朴鶴來**

I. 머리말

II. 도학 계열 문인집단의 형성
배경

III. 도학 계열 문인집단의 형성과
전개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 유학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도학적 흐름은 흔히 ‘韓末 道學’으로 지칭되어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한 ‘한말 도학’에 대한 연구는¹⁾ 이후 문인집단으로 성장한 다양한 학파의 종장을 중심으로 한 인물 연구와 더불어 문인집단화한 학파 연구로 이어졌고, 心說論爭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63617)

**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교수.

주요논저 : 2008, 『(한말 성리학의 거유) 기정진』, 성균관대 출판부 ; 2015, 『매산 홍직필의 성리설 연구』, 『국학연구』 26.

1) ‘한말 도학’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한 학자는 금장태 교수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한 신문에 연재한 원고를 바탕으로 간행한 『유학 근백년』 시리즈는 기호 계열 및 영남 계열의 주요 도학자들을 소개,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 데 기여하였다.

을 비롯한 학과 간 학설 논쟁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적어도 이 시기 도학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시기의 유학에 대한 연구는 조선 유학의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성리설 논쟁을 비롯하여 위정척사와 의병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지향의 양상 및 성리설과의 연관 문제, 그리고 근대로의 문명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유학적 지식인의 인식 등 검토해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²⁾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제까지의 한말 도학에 대한 연구 성과에 유의하여 ‘한말’을 ‘근대 이행기’로 설정하고,³⁾ 해당 시기에 호남 지역을 배경으로 형성되고 활동한 문인집단을 검토하여 호남 유학의 지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시기 도학적 흐름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을 배경으로 문인집단화가 나타나고, 문인집단을 중심으로 성리설에 대한 탐구와 현실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연구는 문인집단과 지

2) 이 시기 도학적 흐름에 대한 연구를 선도한 것은 특정 학맥을 기반으로 한 연구단체이다. 이러한 연구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인 연구를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제한점 또한 가지고 있다.

3) 한국유학사에 대한 이해와 서술과 관련하여 한국 철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시대 구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역사학계에서는 시대 구분과 관련하여 1993년에 <한국역사연구회>가 ‘한국 근대의 시작은 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는 있는데, 이때에도 합일된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 문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대한 연구는 ‘개화기’, ‘개항기’, ‘구한말’, ‘근대 전환기’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학계의 저간 사정을 감안하여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를 ‘근대 이행기’로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시기를 ‘근대 이행기’로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권오영의 『근대 이행기의 유럽』(2012, 돌베개)가 있다.

역과의 관련성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고, 설사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학파와 지역을 도식적으로 매개하는 정도에 그쳐왔다. 하지만 이 시기 도학 계열 문인집단은 대체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지역을 넘나드는 폭넓은 강학 활동을 통해 문인집단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경향이 높았고, 그 결과 대개의 문인집단은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특정 문인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을 단순하게 연계하는 것은 자칫 문인집단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특정 지역에 대한 유학적 흐름을 오도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본고에서는 근대 이행기의 문인집단과 지역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활동한 도학 계열 문인집단을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호남 지역은 근대 이행기 이전까지는 조선 유학의 흐름 속에서 주변부에 위치하였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학맥을 연원으로 하는 많은 학파들이 세력화하였다. 그리고 학술적 흐름과 논쟁은 물론, 현실 대응의 측면에서도 주도적인 활동이 이루어진 중심지 중 한 곳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조선 시대 호남 유학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호남 유학에 대해 연원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더불어 19세기 기호학계의 변화를 검토하여 호남 유학의 지형 형성의 바탕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도학 계열 문인집단의 지형을 정리하고자 한다.⁴⁾

4)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과제인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이데올로기> 연구의 하나이다. 본고는 지역 공동체의 변화 속에서 유교 이념의 수호와 변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을 주도한 지역 내 유림 세력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내용을 확인하고, 호남이라는 지역 내에서 유림 세력이 어떻게 분포하고 그들의 학적 연원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도학 계열 문인집단의 형성 배경

1. 근대 이행기 이전의 호남 유학⁵⁾

조선 유학의 흐름 속에서 호남 지역은 학술적 흐름의 주변부로 이해되어 왔다. 16세기 중반 이후 退溪와 栗谷을 중심으로 전개된 성리학적 흐름이 지역과 연계되면서 영남학과와 기호학파로 재편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호남은 기호학파에 속하는 하나의 주변부 정도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호남 지역은 비록 17세기 이후 비록 학술적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학자나 문인집단을 형성하지 못했지만, 다른 지역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일찍이 성리학적 기풍과 그것에 기초한 향촌사회 질서가 자리 잡은 곳이었다.

호남 지역은 일찍이 백제 유학의 기풍과 통일신라의 유학적 기풍이 자리한 곳이지만, 근대 이행기의 유학적 기풍에 영향을 미친 성리학적 전통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는 麗末鮮初이다. 왕조교체를 맞아 不事二君의 의리정신을 가졌던 성리학적 지식인들이 落南하면서 호남 지역에 성리학적 기풍이 뿌리를 내렸으며, 이후 이어진 왕조 초기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의리 구현을 위해 은거한 유학적 지식인들이 호남으로 이거하면서 성리학적 면모가 지역 내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기를 거치면서 사림과 중심인물인 金宏弼과 趙光祖의 호남 유배와 賜死가 이어지면서 호남에 사림정신이 이식되기도 하였다.⁶⁾

5) 이 부분의 서술은 논자의 2006, 「朝鮮時代 湖南儒學의 전개 양상과 의의」, 『哲學研究』 99를 비롯하여 선행 논문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주를 생략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호남 지역에 건립된 서원과 사우의 배향 인물에서 확인된

이렇듯 호남 지역 내에 착근한 유학적 기풍이 무르익음에 따라 일군의 유학자들은 재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촌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주자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사림정치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中宗과 明宗 代에 주목할 만한 호남의 주요 학자들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며 중앙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⁷⁾ 당시 호남 유학의 번성에 대해 許筠은 “靖陵(중종의 능호) 조에는 호남 출신의 인재로서 드러난 자가 매우 많았다.”고 전제하고, 대표적인 인물로 朴祥, 崔山斗, 宋純, 梁彭孫, 羅世繼, 林亨秀, 金麟厚, 林億齡, 吳璫, 朴淳, 李恒, 梁應鼎, 奇大升, 高敬命 등을 거론하기도 하였다.⁸⁾ 그만큼 16세기 전반기의 호남 유학은 타 지역과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특기할만한 학자들을 배출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 유학을 주도하는 중심지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호남 유학의 번성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사림정치가 본격화하면서 이루어진 봉당정치의 폐해가 호남 지역 내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의 유학적 지식인, 즉 사림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己丑獄事(1589)가 벌어진에 따라 호남 사림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으로써 호남 유학은 침체에 접어들게 되었다. 더구나 당시 호남의 유학 경향이 퇴출 이후 본격화되는 이기심성론의 학술적 경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호남 유학은 중심부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17세기 이후 기호지역이나 영남지역에서

다. 최범호의 연구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서원과 사우에 배향된 인문 중에서 고려말 충신이 14인, 단종 대의 충신이 11인, 사화기의 현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10명이다(2006, 「전북지역 서원 사우의 현황과 성격」, 『자료조사연구로 본 전라문화』).

7) 18세기 낙론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한 사람인 李宜顯은 영남과 호남을 兩南으로 칭하고, 李彥迪을 비롯한 영남 유학자들을 거론한 후, 이와 버금가는 이 시기의 호남 유학자로 崔溥·朴祥·朴淳·金千鎰·林亨秀·林悌를 비롯하여 奇大升, 金麟厚 등을 지역과 함께 거론하였다(『陶谷集』 卷28, 56a~57a, 「陶峽叢說」 참조).

8) 許筠, 『惺所覆韻藁』 卷23, 339下, 「惺翁識小錄」.

와 같이 학문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문인집단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중앙 정계로의 진출도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일시적인 침체기 속에서도 호남 유학은 의미 있는 전진을 이루어 나갔다. 기축옥사에 따라 외형적으로 유학적 기반이 위축되었지만, 다양한 학맥과 정파를 기반으로 한 여러 학자들이 지역 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하였고,⁹⁾ 이른바 실학으로 지칭되는 유형의 학자들이 호남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호남 유학 내에는 다양성이라는 특징이 더해졌다.¹⁰⁾

이 시기 호남 유학의 주류는 역시 서인 노론계이다. 이는 울곡 학맥을 기반으로 한 기호학파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론 학맥의 정점에 서 있었던 宋時烈의 문하에 나아간 호남 사류들이 상당수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호남 유학은 노론 학맥이 중심을 이루었다. 노론들은 호남 내에 자신들의 학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¹¹⁾ 그리고 18세기에 접어들어 호락논쟁이 가열되면서 호남 유학은 洛論으로 경도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魏伯珪(1727~1798)와 같이 호론과의 친연성을 가진 학자들도 없지 않았지만, 낙론의 중심인물인 李緯의 학통을 계승한 李基敬(1713~1787)을 비롯하여 김원행의 문하에서 활약한 黃胤錫(1729~1791) 등 18세기 호남 유학을 주도한 핵심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낙론계 학자였다.

낙론계 학맥은 18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호남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사액서원이자 호남사림의 공론

9) 남인계로 분류되는 尹善道の 활동을 비롯하여 林泳, 林象德, 梁得中 등 소론계 학자들이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였다.

10) 17세기 이후 柳馨遠이 전북 부안으로 이거하여 실학적 학풍을 꽃피웠고, 18세기말에는 丁若鏞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와 호남에 실학적 학풍을 굳건히 이식하였다.

11) 송시열이 金麟厚의 神道碑銘을 작성하는 등 호남 사림 형성기의 대표적인 사림에 대한 현양 작업을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기호 노론의 호남 내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중심지인 筆巖書院의 원장을 이 시기에는 金元行, 金履安 등 낙론계 핵심 학자들이 연이어 맡았다. 그리고 19세기에 접어들어서도 낙론의 핵심 인물인 洪直弼(1845~1852)이 원장직을 계속 맡는 등 기호 낙론의 호남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특히 낙론의 호남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낙론계 종장인 김원행이 추진한 김인후의 현양 활동이다. 그는 호락논쟁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와중에서도 김인후의 文廟 從享論을 추진하였다. 비록 자신에 의해 문묘 종향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호남을 대표하는 김인후가 문묘에 종향됨에 따라 낙론의 호남 내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¹²⁾

위와 같이 호남 유학은 사림정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다른 지역에 앞서 의미 있는 학풍과 학맥이 扶植되어 그 기반이 확보되었으며, 기축옥사 이후 침체기를 거쳐 17세기 이후부터는 기호계열 학풍이 굳건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후 노론 학맥을 기반으로 한 낙론계 학풍이 비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풍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유학적 전통은 19세기 이후부터 근대 이행을 거치는 과정에서 호남 유학의 부흥을 이끄는 학술적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전에 보지 못한 문인집단화의 기초로 기능하였다.

2. 호남의 유림 세력과 원유

호남 유학은 절의정신을 가진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의 落南과 더불어 사림 정신의 이식을 계기로 주목할 만한 학자군을 배출하며 조선 유학의 학술적 흐름을 주도하였지만, 기축옥사 이후 상대적으로 침체

12) 조준호, 2003, 『朝鮮 肅宗 英祖代 近畿地域 老論學脈 研究』, 국민대 박사 학위논문, 183~190쪽 참조. 김원행의 김인후 문묘 종향 추진은 호남 출신인 그의 문인 黃胤錫은 물론이거니와 김인후의 후손인 金益休 등을 통해 호남 지역 내에 전파되었고, 이를 통해 낙론의 호남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기축옥사가 불러온 1천여 명에 이르는 大獄死는 호남 지역 내 유학적 지식인 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17, 18세기를 거치면서 호남 유학의 기반이자 간단없는 호남 유학의 흐름을 주도했던 지역 내 유학적 지식인들, 즉 유림들이 지속적으로 향촌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조선 유학의 학술적 흐름, 특히 기호학계의 중심을 관통하는 학문적 흐름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내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중앙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열어 놓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비록 17세기 이후 호남 유림들이 학문적 동질성을 갖춘 문인집단을 형성하여 조선 유학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앞선 시대에 꽃피웠던 호남의 선배 유학자들의 학문적 성취를 이은 주목할 만한 학자군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지역 내에서는 향촌 사회의 여론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역할과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호남 유림들은 지역 내에서 신분적 우위와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학적 지식의 재생산 기반이자 지역 공동체의 여론을 주도하는 향촌 자치기구인 書院과 祠宇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기존의 서원과 사우의 운영 강화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현에 대한 奉祀와 유림의 藏修之處로서의 본래적 기능 이외에 정치적인 기능을 확대하며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중앙 정계와의 연계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¹³⁾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이지만 17, 18세기 호남 지역에서는 서원 및 사우의 창설이 빈번하였으며, 기존 서원에 대한 사액 요청도 자주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서원과 사우가 濫設되면서 서원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고, 반대급부로 선현에 대한 봉사의 장소로만 서원의 기능이 한정됨에 따라 서원과 사우의 실질적인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서원과 사우

13) 호남 지역 서원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문택, 2007,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 참조.

는 지역 내의 양반 사족들이 향촌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유대 관계와 자신들의 우월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장소로 기능하였으며, 특히 지역 내 특정 가문의 후손들은 가문이나 종족 간의 결속과 상호 유대를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 내에서 명문으로 행세하고자 서원과 사우 건립에 앞장섰다.¹⁴⁾

선행 연구 조사에 따르면, 서원 철폐령이 단행되는 1871년까지 건립된 전국의 사우는 1,721개(서원 680개, 사우 1,041개)에 달하고, 그 가운데 호남 지역에 설립된 사우는 경상도(서원 370개, 사우 41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서원 120개, 사우 306개)으로 집계된다.¹⁵⁾ 이는 그만큼 호남 유림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서원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 내지 상실되면서 사우와의 차별성이 약화되긴 하였지만, 타 지역에 비해 호남 지역의 사우가 서원에 비해 월등히 많이 설립되었다는 것은 지역 내에 크고 작은 특정 가문들을 중심으로 향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에서 가문이나 종족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했음을 보여준다.¹⁶⁾

구체적으로 호남 지역에서의 사우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¹⁷⁾ 1871년까지 전북 지역에 설립된 서원과 원우는 총 199개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남원(44), 김제(22), 임실(21), 고창(20), 정읍(14), 전주(11), 진안(11), 익산(11), 완주(10) 등에 10개 이상의 서원과 사우가 소재하였던 것으로

14) 鄭勝謨, 1987, 「書院·祠宇 및 鄉校 組織과 地域社會體系(上)」, 『泰東古典研究』 3, 162쪽. 이러한 전국적인 현상에서 호남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5) 윤희면, 2004, 『조선시대 서원정책과 서원의 설립실태』, 『역사학보』 181, 80~81쪽.

16) 물론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전국적으로나 타 지역에 비해 호남 지역의 사우 건립이 두드러지는 것은 통계상 드러나는 지표임에 틀림없다.

17) 호남 지역의 서원과 사우 현황은 윤선자, 2007, 「일제하 호남 지역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 『한중인문학연구』 22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여타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제시한 수치이다.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적게 서원과 사우가 건립되었던 지역은 군산(옥구)으로 4개에 불과하지만, 군산이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된 근대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 지역은 지역적으로 큰 편차 없이 시군 별로 10개 이상의 원우가 설립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남 지역도 전북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원과 사우 건립이 상당하였다. 서월철 폐령 이전까지 설립된 서원과 사우는 총 337개에 이르며, 그 가운데 나주(38), 함평(36)은 30개가 넘는 원우가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밖에도 장성(28), 광주(25), 장흥(23), 담양(22), 화순(18), 영광(18), 강진(17), 영암(17), 해남(16), 보성(15), 순천(14), 곡성(14), 무안(13) 등은 10개 이상의 원우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전남 지역도 전북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편중 없이 고르게 원우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남의 전 지역에 큰 편차 없이 원우가 건립되고 유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호남 지역 내에서 유학적 지식인, 즉 유림의 지위와 역할이 안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¹⁹⁾ 전통적인 향촌의 지배층인 유림들이 원우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여론 향배를 주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교적 이념이 지역사회 운영의 핵심 고리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호남 지역에 건립된 사우들이 대체적으로 문중 사우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은²⁰⁾ 지역 내의 유림 세력이 특정 문중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18) 서월철폐령 이후 전북지역에 복설되는 서원 이외에 신설되는 원우가 42개에 달한다. 전남지역도 전북과 마찬가지로 서월철폐령 이후 서원의 복설 이외에 신설되는 원우가 62개소에 이른다(윤선자, 2007, 앞의 논문)

19) 김준형, 2000, 「조선후기 단성지역의 사회변화와 사족층의 대응」,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이러한 경향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 전북 완주의 사우 중 2, 3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우가 모두 門中 祠宇라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사례이다(최범호, 2006, 앞의 논문, 104~105쪽).

위와 같이 호남 지역 내에 원우의 건립과 운영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학적 지식인, 즉 유림 세력이 굳건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19세기 이후 본격화하는 다양한 문인집단 형성의 인적 기초가 호남 지역 내에 이미 갖추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원우의 건립 및 운영의 활성화는 그만큼 지역 내에 유림의 위상이 작지 않고, 유학의 이념이 지역 내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Ⅲ. 도학 계열 문인집단의 형성과 전개

1. 기호학계의 지형 변화

호남 유학을 포함한 기호학계는 19세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18세기 기호학계의 핵심 논쟁인 호락논쟁이 논쟁 초기의 생산적인 논의를 벗어나 시간이 거듭되면서 정치적 쟁론으로 비화되었고, 19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논쟁의 내용이 학술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였다. 특히 학술 논쟁이 정쟁화 되는 등 내용이 변질되면서 호락 후예들 간의 반목과 대립은 더욱 치열해졌다.²¹⁾ 더구나 18세기 중엽 이후 정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한 낙론이 전국화 하면서 호론은 지역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 영향력이 위축되었고,²²⁾ 세도정치기에 이르러 낙론 우위 현상이 현격해지면서 호론은

21) 자세한 내용은 노관범, 1997, 「19세기 후반 湖西山林의 位相과 ‘正學’ 운동 - 淵齋 宋秉璿(1836-1905)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38 참조.

22) 18세기 후반부터 호론의 약화 현상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任聖周를 위시하여 吳熙常, 洪直弼 등은 호론을 ‘浦論’ 즉 ‘내포 지역의 의론’으로 격

더욱 위축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구체화된 호락논쟁의 末弊的 현상은 기호학계에서 반목과 대립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학계의 분열적 양상에 대해 사상계의 분열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구체화되었다.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호락논쟁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비록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기호학계 학자들에게 자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세도정치기가 계속될수록 호락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이 갈등은 기호학계 지형 변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전 시기에는 호락 양 학파의 중장 역할을 담당했던 학자를 중심으로 학파 문인에 대한 사상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 행사되었고, 지방의 자파 학자들에 대한 중앙학계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다. 하지만 19세기에 접어들어서는 각 학파의 중심 학자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전국적인 학술적 영향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비록 호락 양론의 중심 학자들이 조정으로부터 산림학자로 초치되기는 하였지만, 이들의 정치적 비중이나 사상적 역할은 이전 시기보다 제한적이었다. 그만큼 기호학계 전반에 걸친 호락 양 학파의 학문적 결속 내지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호락 양론에서는 문호 분립 현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기존 학파 내에서의 문호 분립 이외에 특정한 사승 관계나 학맥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인집단을 형성하는 학파의 분화 현상도 가시화되었다. 새롭게 문인집단을 형성한 이들은 자신의 학문이 율곡으로부터 연원한다는 의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²³⁾ 성리학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학파별로 다른 입

하하여 치칭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호서 지역의 논의라는 의미의 ‘호론’이 호서 지역 내 흥성을 중심으로 한 내포 지역으로 국한되어 鄉儒化되었음을 의미한다.

장을 취하여 학파의 분립이 기호학계의 사상적 분기로 이어지는 특징적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기호학계의 학파 분립이 自家說과 연계되었다는 것, 즉 학파별 사상적 차별성이 개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면에는 주자성리학 및 기호학계의 선대 학문, 이를테면 율곡 성리설 계승의 차별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기호학계의 문호 분립 및 학파 분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18세기 이래 본격적으로 드러난 ‘京鄕 分岐’가 19세기에 들어서는 학문과 사상의 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서울 지역이나 지방의 유학적 지식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학적 가치에 기반한 정치사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학풍은 서서히 정통 성리학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성리학적 핵심 주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²⁴⁾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더욱이 새로운 문화의 이입 경향이 강화되면서 19세기 이후의 서울 지역 학풍은 이전과 차별화되는 모습이 두드러졌으며, 도학적 흐름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반면, 지방에 거주하던 유림들은 여전이 이전 시기부터 지속된 성리학적 경향에 경도되어 도학적 전통이 강화되는 면모가 두드러졌다.²⁵⁾ 이에 따라 19세기

23) 이 시기의 기호학계 문호 및 학파 분립의 중심인물들은 율곡 이외에 송시열에 대한 존숭의 태도가 두드러졌다. 이것은 시대상황과 맞물려 그들이 가졌던 위정척사 및 내수외양의 입장이 송시열로부터 연원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24)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兪莘煥 문하의 鳳棲學派 문인들 중에는 성리설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자들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문인 집단에는 도학계열과 차별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즉 유신환 계열은 기호 낙론의 학맥을 계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우 계열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다. 낙론 계열의 대표적인 두 학파가 보여주는 차별성이 경향 분기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5) 학계에서 흔히 한말 도학과로 분류하는 이 시기 기호학계의 주요 학파는

전반기부터 근대이행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호학계 지형 변화인 문호 분립 및 학파의 분화는 대체적으로 지방을 거점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2. 호남 내 도학 계열 문인집단의 형성

호남 지역에서도 19세기 초반부터 본격화하는 기호학계의 문호 분립 및 학파 분화가 구체화되었다. 이전 시기까지 학문적 동질성에 기반한 학파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호남 유학은 19세기 전반기부터 서서히 주목할 만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 학자를 중심으로 세력화하는 문인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근대이행기를 거치면서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에 의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개항이 이루어지고(1876), 이후 갑오개혁(1894)을 비롯하여 중앙 정부에 의해 여러 개혁 정책이 뒤따르게 됨에 따라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유교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호남 유학계는 전통적인 유학적 지식인들의 학파적 결속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호학계를 넘어 전국 유학계의 학문적 논의와 현실적 대응을 이끄는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 호남 유학계에서 전통적인 유학적 흐름에서 벗어나 改新儒學의 모습을 보이는 유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조선 유학의 전통을 계승한 바탕 위에서 도학의 흐름을 주도한 다수의 중심인물을 배출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문인집단을 형성하는 등 지역 내에 인적 네트워크를 크게 강화하며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보다 뚜렷한 문인집단화의 모습을 보였다.²⁶⁾

대부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기반으로 문호를 열고 문인집단을 형성하였으며, 각 학파마다 전국화 하려는 경향 속에서 서울 지역의 문인을 흡수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26) 호남 지역이 19세기부터 근대이행기를 거치면서 기호계열의 다양한 학파

19세기 전반기부터 근대 이행기를 관통하며 호남 유학계를 대표하는 문인집단으로 가장 먼저 자리 잡은 학파는 ‘蘆沙學派’이다. 호남 지역 내에 어느 학파보다 먼저 문인집단화에 성공한 노사학파는 19세기 기호학계를 대표하는 성리학자 중 한 사람인 蘆沙 奇正鎭(1798~1879)의 탁월한 학문적 성취와 유학적 지식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현실 대응책, 그리고 이전 시기부터 조성된 호남 지역 내의 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 내 문인집단화하였다. 특히 19세기 중반의 洋擾期를 거치면서 기정진과 그의 문인들은 內修外攘의 현실대응책을 제시하면서 기호학과 내에서 유력한 문인집단이자 호남의 지역 공동체를 견인하는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기정진의 직전 제자들은²⁷⁾ 대체로 호남의 장성, 고창, 담양(창평 포함), 광주, 능주, 보성, 장흥을 지역적 기반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들의 姓貫은 134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²⁸⁾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노론 가문 출신의 비중이 작지 않았고, 조상 대대로 관직 진출을 이루지 못한 한미한 집안 출신도 그 비중이 작지 않았다. 『蘆沙先生淵源錄』²⁹⁾에 따르면, 기정진의 직접 제자는 총 594명으로 확인되며, 그 가운데 호남 지역의 문인은 95%에 해당하는

들이 활동하는 무대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전 시기에 지역의 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화한 문인집단이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27) 홍영기의 연구에 따르면, 『蘆沙先生淵源錄』에 수록된 기정진 직전제자들은 1801년생부터 1861년까지 퍼져있지만, 문인집단의 주류를 형성한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1820~18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설정한 근대이행기 이전에 호남 지역 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유림은 기정진의 직전 문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999, 「노사학파의 형성과 위정척사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10, 83~84쪽).
- 28) 김봉근, 2007, 『노사학파의 형성과 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10~120쪽.
- 29) 『蘆沙先生淵源錄』은 기정진 사후 채 1백여 년이 지나지 않은 1961년 장성의 유학자 邊時淵 등에 의해 간행되었다.

56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³⁰⁾ 그만큼 노사학과 내에서 호남 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노사학과 문인들의 지역적 분포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기정진이 거주하던 장성(79명)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주(96명), 담양(63명), 화순(47명), 고창(44명)에 다수의 문인이 분포하지만, 지금의 전라북도 주요 중심지인 전주와 익산 등지에는 거의 문인들이 분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노사학과는 호남을 중심으로 문인집단화하면서 동시에 서부 경남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³¹⁾ 이러한 분포는 호남 내에서 노사학과가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기보다는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사학과는 호남을 대표하는 문인집단이지만, 호남을 포괄하는 문인집단은 아니며, 문인 분포의 면에서 현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서부 경남 지역으로 확대한 문인집단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기정진의 직전 제자를 통해 그 영향력이 이어진 재전 제자 및 삼전 제자의 지역적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노사학과와 직전 제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강학 활동을 펼쳐 그들의 문인들은 대체로 거주지 주변으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蘆門의 3대 제자 중 한 사람인 鄭義林(1845~1910)의 경우, 노사학과 내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상이 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30) 김봉근, 2009, 「湖南地域의 奇正鎮 門人集團의 分析」, 『호남문화연구』 44. 그의 분석에 따르면 기정진의 직전 제자 가운데 호남 지역의 서부에 거주하는 문인은 137명(24.20%)이다. 그리고 호남의 중부에는 245명(43.29%), 남부 지역에는 92명(16.25%), 그리고 동부지역에는 84명(14.84%)의 문인이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밖에 부안(2명), 김제(2명), 진안(1명), 전주(3명) 등 북부지역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31) 서부 경남은 복인 정권 몰락 후 특정한 학파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다. 17세기 이후 송시열 등에 의해 노론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가운데,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맥의 扶植이 두드러졌다.

문인들은 호남 지역의 일부로 제한되는 면모를 보인다. 그의 직전 제자 336명 가운데 거주지가 확인되는 277명은 대부분 그의 거주지인 능주(158)와 인근 남평(6) 출신이고, 그의 재전 제자들도 능주, 남평 이외에 나주와 남평으로 확대되는 데 그쳐 문인 배출의 지역적 영향은 극히 제한적임이 확인된다.³²⁾ 기정진 사후에 학파 내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기정진의 손자 奇宇萬(1846~1916)도 다른 문인에 비해 영향력이 전남을 중심으로 호남 전 영역으로 확대되긴 하였지만, 그 지역적 범위는 기정진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³³⁾ 기정진보다 많은 1,194명의 직전 제자들을 배출하지만, 그의 문인들이 보여주는 지역적 범위는 지금의 전남 지역에 한정된다.³⁴⁾

이러한 점에 비추어 19세기를 관통하며 근대 이행기에 호남 지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 노사학파는 대체로 현재의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서부 영남지역으로 확대한 문인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⁵⁾ 사학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지역과 노사학파의 문인이 분포하더라도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지역에는 다른 학맥의 문인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했고, 실제로 여러

32) 김봉곤, 2009, 앞의 논문, 125~131쪽. 권수용의 연구에 따르면, 정의림의 문집 부록으로 엮여진 『日新齋信從錄』에는 그의 문인이 264명이 등재되어 있지만, 1967년에 간행한 『日新齋先生淵源錄』에는 336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2014, 「1900년 전후 화순 유학의 흥성과 정의림의 역할」, 『지방사와 지방문화』 17). 김봉곤은 후자를 저본으로 그의 문인을 분석하였다.

33) 이러한 재전문인의 분포는 직전 제자들이 기정진과 같이 전국적인 명망 내지 호남 전체를 아우르는 사상적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학문적 사상적 명망을 갖추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 전개된 것에서 기인하고, 아울러 이들이 활동하던 근대 이행기가 유교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던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4) 기우만의 제자 중 전북에 해당하는 진주(3), 군산(1), 익산(4), 김제(9), 부안(6), 장수(1) 등지에서 제자를 배출하지만, 전체 규모면에서 극히 제한적이었다.

35) 진주, 합천, 삼가 등 서부영남에는 직전 제자가 다수 분포하지는 않지만, 노사학파 내 비중 있는 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蘆沙集』 重刊과 관련한 학술논쟁의 원원지도 이 지역이었다.

문인집단의 유림들이 활동하였다. 그러한 대표적인 문인집단으로는 ‘良齋學派’와 ‘淵齋學派’를 들 수 있다.

간재학파는 기호 낙론의 학통을 계승한 良齋 田愚(1841~1922)와 그를 중장으로 하는 거대한 문인집단이다. 앞서 제시한 노사학과 보다 적어도 한 세대 뒤에 문인집단화한 良齋學派는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기호학계 최대의 학파이다. 간재학파의 중장인 전우는 19세기 전반기부터 정국을 주도하던 집권 노론 세력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산림학자인 鼓山 任憲晦(1811~1876)의 학문적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그리고 스승의 거주지를 따라 자신의 처소를 옮겨 다니며 학문을 익혔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는 청장년기에는 주로 호서(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지만, 장년기 이후에는 호남 지역을 위시하여 전국 각지에서 강학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개항 이후 근대 이행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이 구체화됨에 따라 스스로를 부안 계화도에 유폐시킴으로써 유학의 도를 지키고자 하는 자정의 길에 접어들었다.

전우는 비록 생애의 대부분을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였지만, 그가 호남인 전주 출신이자 그의 주요 인적 관계망이 호남을 중심으로 엮여져 있었던 만큼 그의 문하에는 일찍부터 호남 출신의 유학적 지식인이 운집하였다.³⁶⁾ 더구나 임헌회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던 때부터 그는 호남 지역의 유력한 유림들과 일정한 관계를 지속하며 호남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였다. 『華鳴淵源錄』³⁷⁾의 「從遊錄」에 기재된 375명의 선배 학자 가

36) 전우 문하의 ‘三齋’ 중 欽齋 崔秉心, 顧齋 李炳殷 등은 호남 출신으로서 전우가 호남으로 이거하기 전에 이미 그의 문하에 들어갔다. 그만큼 일찍부터 전우의 학문적 영향력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호남 내에 일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7) 『화도연원록』은 1962년에 편찬되었다. 이 문인록에는 「道統淵源圖」를 비롯하여 「從遊錄」, 「同門」, 「觀善錄」, 「及門」, 그리고 「尊慕錄」으로 구성된

운데에는 거주지가 확인되는 233명 중에는 익산 출신으로서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적지 않은 문인을 배출했던 낙론계 선배 학자인 蘇輝冕(1814~1889)과 같이 호남 출신 인사가 115명(전북 88명, 전남 27명)에 달할 정도로 전우는 일찍부터 호남 출신 선배 학자와의 교류를 깊이 있게 유지하였다.

호남 출신이지만 전국적인 학문적 영향력을 발휘한 전우의 위상에 따라 그의 문인집단은 기본적으로 전국화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호남의 유림이 자리를 잡고 있다. 『화도연원록』의 「觀善錄」에 등재된 1,575명 중 거주지가 확인되는 1,522명 중 호남 지역의 문인은 771명(전남 355명, 전북 416명)으로 확인된다.³⁸⁾ 「관선록」에 등재된 문인은 제자로서 집지의 예를 올리고 전우가 문인으로 등록한 문인이라는 점에서 그 학문적 사상적 동질성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인 전체 중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호남의 문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간재학파의 지역적 기반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호남 지역 문인 가운데 소지역별 분포를 확인하면, 전우의 강학처인 부안이 80명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앞서 검토한 노사학파의 영향력이 높았던 지금의 전남 지역에도 고르게 문인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⁹⁾

이밖에도 전우의 문하에서 수업을 받았지만 집지의 예를 하지 않아 「及門」에 기재된 186명의 문인 가운데 지역이 확인되는 호남 출신이

「乾」과 「師叔錄」이 수록된 「坤」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38) 그가 생전에 직접 작성한 문인록인 『觀善錄』(필사본)에 기재된 직계 문인 1,488명이고, 이 가운데 호남 출신은 당시 호남에 포함되었던 제주를 포함하여 총 733명(49.26%)이었다(박학래, 2007, 「간재학파의 학통과 사상적 특징」, 『유교사상연구』 28, 84~87쪽).

39) 노사의 직전 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고창, 장성, 광주 등지에 각각 20명을 상회하는 문인이 분포하며, 전남 지역 내에서 노사학파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나주, 무안, 함평 등지에 100명에 육박하는 많은 문인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자세한 문인 분포는 박학래, 2007, 앞의 논문 참조.

132명(전남 26명, 전북 106명)이고, 급문하지는 않았지만 전우를 실심으로 존모한 문인인으로 분류되는 유림을 등재한 「尊慕錄」에 등재된 604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302명(전남 87명, 전북 215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간재학파의 지역적 기반은 호남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문인들의 분포 또한 호남 내에서 특정 지역의 편중 없이 고르게 문인이 분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간재학파는 호남 지역의 유림 세력을 문인집단화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듯 간재학파가 호남 내에서 가장 강력한 문인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8세기 이래로 호남 내의 유림들이 기호 낙론으로 경도한 것과 전우가 기호 낙론계의 적통을 계승한 산림학자라는 측면이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전국적으로 문인을 배출하면서도 호남 내에서 가장 많은 문인을 배출하며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간재학파 이외에도 다른 통로를 통해 호남 내에 유력한 문인집단을 형성한 학파는 ‘淵齋學派’이다. 연재학파는 淵齋 宋秉璿(1836~1905)과 그의 아우 心石齋 宋秉珣(1839~1912)의 학문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성립하였다. 송병선은 노사학파의 종장인 기정진에 비해서는 한 세대 뒤에, 간재학파의 전우와는 동 시대에 활동한 유림의 중심인물이다.

위정척사의 연원적 인물로 평가 받는 宋時烈的 학문과 사상을 家學으로 하는 송병선은 어려서 백부 宋達洙에게서 학문을 익혔으며, 宋穉圭와 金正默 등에게서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락 양론에 구애되지 않는 포용적인 학문적 입장을 견지하였고, 19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호론과 낙론을 넘나드는 교류를 통해 특징적인 학풍을 수립하였다. 일찍이 선배 학자인 기정진

40) 노사학파의 주요 구성원인 전남 지역의 노론 가문들은 노사학파의 종장인 기정진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흥직필, 임헌회 등 노론 낙론계 학자들과 자주 왕래하였다(김봉곤, 2009, 앞의 논문, 113쪽). 이러한 것이 간재학파의 영향력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을 비롯하여 호남의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의 유림들과 학문적 교류를 지속하였으며, 자주 호남을 방문하여 호남 내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비록 강학의 중심이 충청이었지만, 강학의 범위를 확대하여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전국적인 분포의 문인집단을 형성하였고, 호남 내에서 비중 있는 문인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였다.

연재학과의 규모 및 구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溪山淵源錄』은 충청도 옥천의 ‘遠溪’를 중심으로 강학활동을 전개한 송병선과 충청도 영동의 ‘活山’을 중심으로 강학활동을 펼친 송병순의 강학지에서 각각 한 글자를 따서 명명한 것이다. 『溪山淵源錄』에는 선배 학자들과 교유한 학자들을 기록한 「從遊錄」 이외에 송병선 형제에게 束脩의 禮를 마치고 사제의 연을 맺어 공식적으로 문인이 된 유림들의 성명과 출신지 등을 기록한 「門生錄」,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지만 공식적인 예를 갖추지 못한 문인들을 수록한 「及門錄」, 그리고 수업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존경의 뜻을 가진 운인을 기록한 「尊慕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門生錄」에 등재된 문인 1,100명과 「及門錄」의 문인 214명 이외에 직접 제자는 아니더라도 송병선 형제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인사의 기록인 「尊慕錄」에 1,318명이 기재되는 등 2,500명을 상회하는 유림들이 송병선 문하에서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연재학과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문생록」의 1,100명의 문인 가운데 호남 출신 문인이 특정 지역에 편중됨 없이 총 50개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그 숫자가 572명(52.0%)에 이른다.⁴¹⁾ 그 가운데 전북 출신이 235명(21.36%), 전남 출신이 337명(30.64%)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다. 소지역별로는 송병선 형제의 강학처와 가까운 전북 무주(40명) 이외에 장흥(44명), 무안(35명), 남원(31명) 등지가 상대적으로 문인 비중이 높았고, 노사학과의 중심지 중인 장성(19명), 광주(20명), 광산(19명), 고창(21명) 등에도 상당수의

41) 연재학과 문인 분포와 분석 내용은 박경목, 2001, 「연재 송병선의 학맥과 민족운동」, 『대동문화연구』 39, 261~266쪽 참조.

문인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재학과의 전북 내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부안(9명), 익산(11명) 등지에서도 일정 정도의 문인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연재학과의 호남 내 비중이 작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송병선 형제의 중심 강학처가 위치한 충청도의 문인이 81명(7.36%)에 불과하고, 강학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경상도 문인도 318명(28.91%)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비해 호남의 문인이 절반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연재학파를 충청 지역을 근거로 활동한 문인집단으로만 이해하는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송병선 형제는 주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강학활동을 전개하였지만, 그들의 강학 중심지 옥천과 영동은 충청 지역에서 영남과 호남으로 넘나들기에 용이한 위치에 소재하였고, 더구나 송병선의 경우에는 1890년에 접어들어 부친의 묘소가 있는 전북 임피를 중심으로 강학 활동 및 향약을 전개하는 등 활동 반경을 호남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호남 지역은 17세기 이래로 송시열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송시열의 후손이자 호남과의 친연성이 작지 않았던 송병선의 활동은 호남 내의 유림 세력을 규합하고 문인집단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의리 정신의 구현이 투철하였던 호남 지역의 유림들은 1900년대에 접어들어 송병선이 보여준 강한 斥邪精神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전남 보성에서 활약한 安圭容 등이 시기에 연재 문하에 입문하여 강한 의리 정신 구현을 강조하였다.

근대 이행을 거치면서 호남 지역에 주목할 만한 지역적 기반이 없었던 華西 계열의 勉菴 崔益鉉(1833~1906)도 호남 지역 내에 적지 않은 문인을 배출하며 유력한 문인집단을 형성하였다. 최익현은 화서학과 문인 내에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춘 학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도학 계열 학자 가운데에서는 드물게 호조참판을 역임하는 등 고위 관직을 거쳤으며, 서원철폐령 반대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자수호조약(1876)을 반대하는 持斧上疏를 주도하는 항일 의지를 드높여 전

국의 유림들과 일반 백성들의 준망을 한 몸에 받았다. 이에 따라 그를 따르는 유림들이 적지 않았다.

최익현은 만년(68세, 1900년)에 강학처를 호서의 定山(현재 충남 청양)으로 옮기면서⁴²⁾ 호남지역으로까지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고향인 경기 포천을 떠나 호서 지역으로 이거한 그는 지속적인 강학 활동을 통해 충청 지역은 물론, 호남 지역으로까지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⁴³⁾ 제국주의 침탈에 맞서 유림들을 대표해 지속적인 상소 운동을 전개한 그는 을사늑약(1905)이 체결된 이후에는 항일 의병을 주도하였다. 특히 그는 호남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항일 의병을 일으킴에 따라 호남을 중심으로 한 유림들이 그의 문하로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최익현의 문인은 화서학파의 高弟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李恒老 문하에서 배출된 문인을 총망라한 문인록인 『蕪溪淵源錄』에 따르면, 최익현의 문인수가 851명으로 확인되고 있지만,⁴⁴⁾ 華西學會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최익현의 문인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905명이 게재되어 있다.⁴⁵⁾ 두 자료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나지만, 김평목(343명), 유중교(433명), 유인석(714명)과 비교해 최익현의 문인이 월등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勉庵先生文集』 附錄 제3권, 「年譜」, 庚子(先生 68歲條).

43) 전국적인 지명도는 물론이거니와 호남에서의 학문적 영향력이 높았기 때문에 기정진 사후에 기정진의 문인들은 스승의 神道碑銘을 최익현에게 요청했고, 최익현은 기정진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는 신도비명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남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최익현의 활동은 노사학파와 화서학파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4) 張三鉉 편저, 1999, 『蕪溪淵源錄』, 양평문화원, 16~20쪽.

45) 화서학회 홈페이지(<http://cafe.daum.net/hwaseo-society>) 참조. 『蕪溪淵源錄』에 수록된 문인 숫자와 화서학회 자료의 문인 숫자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이항로 제자 중 비교적 학문적 영향력이 크고 활동이 활발했던 제자는 최익현으로 확인된다.

화서학회 자료에서 확인되는 905명의 문인 가운데 거주지가 확인되는 문인은 대략 364명(40.22%)에 이른다. 그 가운데 호남에 거주지를 둔 문인은 209명(전남 139명, 전북 70명)으로 확인된다. 거주지가 호남으로 확인되는 문인이 전체 문인 가운데 20%를 상회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최익현의 문인 가운데 호남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거주지가 확인되는 문인 가운데 충남 (49명), 경남(38명), 경기(11명)의 비중을 크지 않음을 고려하면 더더욱 호남 지역 문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당시 호남 지역에는 도학 계열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보였지만 유학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海鶴 李沂(1848~1909), 梅泉 黃玆(1855~1910), 그리고 이 두 인물과 더불어 '近代 湖南 三傑'로 일컬어지는 石亭 李定稷(1841~1910) 등이 활동하였다. 이들 가운데 이정직과 같은 학자는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문하에 유력한 문인집단을 형성하여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3. 유교 이념의 수호와 변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중반 이후 근대 이행기를 거치면서 호남 지역에는 기호 학계의 다양한 학파가 뿌리를 내렸으며, 호남 지역 내의 유학적 지식인, 즉 유림들은 이 학파를 통해 세력화를 도모하였다. 이 시기 호남 내의 유림 집단으로 세력화한 노사학파를 비롯한 간재학파, 연재학파, 그리고 화서학과 계열의 최익현 문인집단 등 크고 작은 유림 세력들은 19세기 이전부터 호남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한 기호 노론을 연원으로 하거나 혹은 기호 노론과 친연성이 높은 학파라는 점에서 호남 유학의 전통이 이 시기에도 이어진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 후반까지 존치되었던 호남 지역 내 서원 및 사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호남 지역에는 여러 문인집단으로 편입될 수 있는 유림 세력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이들은 갑오개혁과 단발령 등 중앙 정부의 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본격화하는 근대 이행을 맞이하여 이전 시기와는 달리 유교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가는 가운데에서도 유교적 가치와 이념을 수호하고자 하는 데 관심을 갖고 문인집단화, 즉 학파적 결집에 스스로 동참하였다.

학파를 불문하고 19세기부터 본격화한 삼정 문란의 폐해를 직접 목도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개혁책을 제시했던 호남의 유림들은 개인이 아니라 학파적 결집을 통해 개항 이후 지역 사회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항 이후 호남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제국주의적 침탈에 따른 폐해가 극심하였고,⁴⁶⁾ 이러한 폐해는 지역 공동체의 위기로 다가왔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한 호남 유림세력들은 개인이 아니라 학파적 결집을 통해 이전 시기부터 누적된 폐해를 해소하고, 구체화되는 제국주의 침탈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호남 유림세력들의 노력은 개항을 전후한 시점부터 상소운동이 개인보다는 집단화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갑오개혁과 단발령 등 중앙정부의 개혁 조치에 대해 집단적 반발이 이어지는 점에서 확인된다. 특히 을사늑약(1905) 이후 호남 유림세력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구체화되면서 학파적 결집을 통한 집단적 노력이 학파 간의 연대로 이어지면서 학파적 결집은 보다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학파적 결집이 가지는 의의를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호남 지역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면서 지역 공동체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유림 세력들은 근대 이행을 거치면서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국가’와 ‘유교’라는 두 가지 이념적 지향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유교적 가치의 약화를 불러일

46) 홍순권, 1994,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35~77쪽.

으키는 단발령이나 교육제도의 개혁, 그리고 과거제의 폐지를 경험하면서 호남의 유림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유교적 가치를 온존시키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을 학파적 결집과 서원 및 사우와 같은 향촌운영 기구를 통해 진행하였다.⁴⁷⁾ 그리고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도 유교적 가치를 내세워 저항하였다. 이 때 이들의 실천적 양상은 비록 다양한 스펙트럼 하에 놓이는 등 차별화되어 드러나지만, 그들이 의도하는 지향점은 일치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⁸⁾

근대 이행을 거치면서 유교적 이념에 대한 호남 유림들의 생각은 변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현실 대응의 측면에서 제기되었던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정에서 긍정의 방향으로 수정되기도 하였으며,⁴⁹⁾ 의병 활동을 전개하면서 초기의 유림 세력 중심의 편제나 운영이 평민층과의 연대 강화 등 실질적인 투쟁 강화로 이어지면서 신분제 변화의 구체적인 수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현실 인식 및 대응의 면모는 학파 간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동일 학파 내에서도 다른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등 변용의 모습이 보다 강화되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결국 유교 이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같이하면서도 현실 변화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서서히 드러난 결과이며, 결국 유교 이념의 변용이 하나씩 현실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7) 서원철폐령 이후 호남 내에서는 서원과 사우의 복설과 시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조치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유교적 가치를 존속시키려는 지역 유림세력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였다.

48) 실천적 지향에 소극적이었던 전우나 의병활동에 헌신한 최익현이나 유교적 이념에 대한 열망은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응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우는 최익현의 의병에 찬동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고, 최익현은 전우나 송병선의 유학적 질정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면서 수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49) 간재학파의 경우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이었지만, 노사학과 문인들은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김봉근, 2009, 앞의 논문, 232~234쪽).

근대 이행기를 거치면서 도학 계열의 학파 문인들 내부에서 유교 이념의 변용이 일정 정도 구체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이들의 이념적 지향의 저변에는 유교 이념의 수호가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파적 결집을 이룬 호남 지역의 유림 세력들은 지역 내의 유교적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과거제의 폐지와 더불어 근대식 교육이 실시되어 유교적 지식이 더 이상 입신의 통로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학파의 문인 학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된 강학활동이 전개되었고, 동학농민전쟁 이후 호남의 지역 유림들이 강조된 향약 등은 지역 공동체를 유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운영하려는 지향의 과정과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원 철폐령 이후 근대 이행기를 거치면서 호남 지역 내 서원의 복설과 신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⁵⁰⁾ 유교적 의례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운영이라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19세기 중반부터 근대 이행기를 거치면서 호남 유학의 지형은 노사 학파를 위시하여 간재학파, 연재학파, 그리고 화서 계열의 최익현 문인집단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 밖에도 군소 규모의 다양한 학맥의 문인집단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들 문인집단은 근대 이행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것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문인집단의 핵심 인물에 대한 서원과 사우의 설립이 이루어진 데에서 확인된다.⁵¹⁾ 특정 지역에서만

50) 윤선자, 2007, 앞의 논문 참조.

51) 연재학파의 종장인 송병선을 향사한 신설 원우는 군산의 산양서원, 익산의 백산사, 광주 만주사 등이며, 최익현을 향사한 신설 원우로는 고창의 도동사, 순창 지산사, 정읍의 하청사, 곡성 오강사, 군산의 현충단, 진안의

이러한 원우의 신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호남 전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 만큼 근대 이행기에 호남 유학의 지형을 이룬 도학 계열 문인집단은 지속적으로 지역 공동체 내에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도학 계열 유림들에 대한 관심은 국가를 키워드로 그들이 펼쳤던 위정척사운동이나 의병 활동에 모아졌고, 유학사상 연구자들은 그들의 성리설에 주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해 왔다. 물론 이들은 근대 이행기를 거치면서 학파 간 연대를 통해 의병 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고, 20세기 초반에도 栗谷 性理說 계승을 둘러싸고 학파 간 학설 논쟁을 진행하였다.⁵²⁾ 그리고 의병 활동 등 실천적 지향을 통해 지역민에게 국가적 위난을 극복하는 중심으로서의 문인집단의 위상을 강화하였고, 학설 논쟁을 거치면서 문인집단내부의 사상적 결속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근대 이행기를 거치면서 문인집단화한 유림 세력들에게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유교 이념 전통의 수호를 위한 향촌 사회 내에서의 활동이다. 학파적 결집을 통해 현실에 대한 대응력과 학적 연원 및 정통성을 높인 지역 내 유림 세력들은 문중을 중심으로 한 선현의 문집 간행 사업 등 다양한 유교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작업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 내에서 유교적 원리를 작동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병행하였다. 특히 인륜 도덕에 기초한 유교적 가치는 물론 향촌 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유교 이념을 지역 공동체 내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강학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근대 이행기를 거

영고사, 충열사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전우를 향사한 부안 계양사, 고창 용암사를 비롯하여 기정진을 주향으로 한 장성의 고산서원에는 노사학파의 주요 문인이 배향되어 있다. 이밖에도 이 문인집단의 주요 인물을 향사한 원우가 호남 곳곳에 신설되었다.

52) 대표적으로 『蘆沙集』 重刊을 둘러싸고 기호학계 전반으로 확대된 논쟁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전우의 性師心弟說에 대한 타 학파의 비판과 반비판도 진행되었다.

치면서 해체되거나 존립 근거를 잃은 것은 근현 단위에서의 유교공동체였을 뿐이지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촌락 단위는 아니었다.⁵³⁾ 학파별 결집을 통해 유교적 이념에 대한 정통성을 확인한 호남의 유림들은 새롭게 펼쳐지는 변화의 질서에 대응하면서 적어도 촌락 단위에서는 유교가 가지는 특정 기능을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근현대 지역 공동체의 변화에 주목한다면 지역 내에서 강고하게 뿌리를 내렸던 유교 이념의 실질적인 담지자인 지역 유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호남 유학, 노사학과, 간재학과, 연재학과, 화서학과, 기정진, 전우, 최익현, 송병선

논문투고일 2015. 8.10. / 심사시작일 2015. 8. 11. / 심사완료일 2015. 8.24

53) 정진영, 2013, 『양반들의 생존 전략에서 얻은 통찰』, 『500년 공동체를 움직인 유교의 힘』, 글항아리, 145쪽 참조.

참고문헌

- 奇正鎭, 1983, 『蘆沙先生全集』(附 『蘆沙先生淵源錄』), 保景文化社.
- 田 愚, 1984, 『艮齋先生文集』, 保景文化社.
- 崔益鉉, 1970, 『勉菴集』, 勉菴先生記念事業會.
- 宋秉璿, 1981, 『淵齋集』, 龍洞書院.
- 奇宇萬, 2005, 『松沙集』, 民族文化推進會.
- 李宜顯, 1985, 『陶谷集』, 保景文化社.
- 張三鉉 편저, 1999, 『蕪溪淵源錄』, 양평문화원.
- 李道衡 編, 1962, 『華鳴淵源錄』(乾, 坤).
- 溪山淵源錄編纂所 編, 1966, 『溪山淵源錄』.
- 고영진, 2001, 「기정진학과의 학통과 사상적 특성」, 『대동문화연구』 39.
- 권수용, 2014, 「1900년 전후 화순 유학의 흥성과 정의림의 역할」, 『지방사와 지방문화』 17.
- 권오영, 2012, 『근대 이행기의 유림』, 돌베개.
- 김도형, 2014, 『근대 한국의 문명전환과 개혁론』, 지식산업사.
- 김문택, 2007,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
- 김봉곤, 2007, 『노사학과의 형성과 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9, 「湖南地域의 奇正鎭 門人集團의 分析」, 『호남문화연구』 44.
- 김준형, 2000, 『조선후기 단성지역의 사회변화와 사족층의 대응』,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노관범, 1997, 「19세기 후반 湖西山林의 位相과 ‘正學’ 운동」, 『한국사론』 38.
- 박경목, 2001, 「연재 송병선의 학파와 민족운동」, 『대동문화연구』 39.
- 박학래, 2006, 「朝鮮時代 湖南儒學의 전개 양상과 의의」, 『哲學研究』 99.
- _____, 2007, 「간재학파의 학통과 사상적 특징」, 『유교사상연구』 28.
- 윤선자, 2007, 「일제하 호남 지역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 『한중인문학 연구』 22.
- 윤희면, 2004, 『조선시대 서원정책과 서원의 설립실태』, 『역사학보』 181.

- 鄭勝謨, 1987, 「書院·祠宇 및 鄉校 組織과 地域社會體系(上)」, 『泰東古典研究』 3.
- 조준호, 2003, 『朝鮮 肅宗 英祖代 近畿地域 老論學脈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범호, 2006, 「전북지역 서원 사우의 현황과 성격」, 『자료조사연구로 본 전라문화』.
- 홍영기, 1999, 「노사학과의 형성과 위정척사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10.

【Abstract】

The Topography of Honam Confucianism in
the era of Modern transition

– Focusing on the unfolding and formation of
literati group in the Learning of Dao –

Park, Hak-rae

This paper defines the late Choseon period as the era of modern transition by paying attention to researches on the learning of Dao in the late Choseon period in current academia. It will examine the contour of Honam Confucianism by investigating formation of literati group having the background of Honam province at that time.

In that period, one of distinctive features in the tide of Dao Learning is collectivization of literati having the local background and the schools of grouping by literati played central roles in studying neo-Confucian theories of Nature and Principle and coping with situations in the real world.

However, established researches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i groups and their local backgrounds. Although they have academic interests, they just touched schematic connections between them. At that time, literati group in the learning of Dao generally tried to extend their external scale through wide activities of educations and studying crossed over their regions. Thus, most literati groups wanted to make themselves nation-wide ones beyond specific regions. Therefore, that one simply links specific literati groups to certain regions could misunderstand the size and character of literati

groups and mislead us about the Confucian tide of specific regions. We need to understand them systematically by investigating diverse materials and data about them.

Being aware of these points above, I will analyses literati groups of the Dao Learning based upon the Honam background by paying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eatures and literati group in the era of modern transition. In order to do this, I examine Honam Confucianism with genealogical perspective of the unfolding and formation of Honam Confucianism in the Choseon period. In addition to this, by exploring the changes of Kiho School in nineteenth century, I verify the formation of topography of Honam Confucianism and clearly explain the contour of literati groups formed based on Honam province.

key words

Honam Confucianism, Nosa-School, Kanjae-School, Yeonjae-School, Hwaseo-School, Ki-jeongjin, Jeon-woo, Choi-ikhyeon, Song-Byeongson.